

강원도 영동지역 마을에서 모신 신령(神靈)의 구조와 의미

The Structure and Meanings of the Deities Venerated in the Villages of the Yeongdong Region, Gangwon-do

김도현*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관행제·마을 제당·해안 마을로 분화된 동제 층위 속에서 천신(天神)·산신(山神)·성황(城隍)·토지신(土地神)·용왕(龍王)·해서낭·집대·수부 등 이 지역에서 모신 신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성황과 토지신은 경계 수호와 정주·생산 기반을 관장하며, 용왕과 해서낭 등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풍어, 수사자 위무를 담당하고, 산신은 산림·수원(水源)·교역로를, 여역신은 역병과 원혼의 제압을 맡는다. 천신과 천왕은 상·하당 구조에서 상위 통합 신격으로 기능하며, 수부는 공동체 공덕을 제도화한 기억의 매개자로 작동한다.

동일 신령이라도 관행제, 마을, 해안지역이라는 제의 공간과 농업·어업·산림 등 생업 환경에 따라 기능과 위상이 재편되며, 중심 신령과 상당신·하당신이 상호 보완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는 영동지역 신앙 체계가 단선적 위계가 아니라 지역 환경과 공동체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의례 생태계'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한국 민속종교가 특정 신격의 절대적 지배보다는, 기능·장소·공동체 규모에 따른 역할 분담과 재맥락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모해 온 과정을 입증하는 지역 사례로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강원도, 영동지역, 성황, 토지신, 여역신, 천신, 산신, 용왕, 해서낭

- 차례**
1. 머리말
 2. 관행제(官行祭) 및 고을에서 모셨던 신령의 전승과 변화
 3. 마을 제당에서 모신 신령
 4. 해안지역에서 모신 신령
 5. 영동지역에서 모신 신령이 지닌 의미와 성격
 6.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강원도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관이 주재한 관행제(官行祭)와 고을신앙의 층위를 거쳐 마을 제당, 해안 지역에서의 동제에 이르기까지 마을에서 동제를 지낼 때 신령을 모신 전통의 지속과 변동 양상을 역사민속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지역에서 천신(天神)·산신(山神)·용왕(龍王)·천왕(天王)·서낭(城隍)·여역(厲疫)·토지(土地) 및 수부 등이 단독으로 모셔지기보다는 상·하당의 위계적 체계와 협시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배치되며, 그 구체적 조합은 지리·지형, 생업 구조(농·어업), 지역 사회의 식자층(識者層) 형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이

러한 다층적 신령 지형은 조선시대 읍치의 성황사(城隍祠)·사직단(社稷壇)·여단(厲壇)·선농단(先農壇)·독신묘(肅神廟) 체계가 해체되고 민간화되는 과정에서 마을 단위로 재편·내면화되었으며, 해안지역에서는 해서낭·용왕제가, 산간 지역에서는 도서낭제와 더불어 천신·산신을 모신 전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분기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 2가지이다. 첫째, 『승람』류 지리지·문집·관문서(官文書) 등 문헌을 검토하여 제의 구조의 역사성을 복원하였다. 둘째, 1967년 이후 축적된 조사 보고와 현지 조사를 토대로 제장 배치, 위패·위목·당신도, 진설·거리 체계, 제관 조직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황을 주신(主神)으로, 천신·산신을 상당신으로, 여역·용왕·해서낭 등을 하당신으로, 토지신을 터주신으로 삼는 전형적 구도가 어떻게 지역적 변이와 역사적 전환(관주도의 제의 질서 → 민간 공동체의 자치적 배치)을 거쳐 재구성되었는지를 논증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릿말에 이어 제2장에서는 관행제(官行祭) 및 고을신앙에서 모셔졌던 신령의 전승과 변화를 통해 관·민 제의의 지속과 변동 과정을 규명한다. 제3장은 마을 제당의 상·하당 구조와 협시 질서를 중심으로 신령 배열의 원리를 정식화한다. 제4장은 동해안 어촌에서 성황·용왕·해서낭 등을 모신 전통을 생업·환경과 결부해 해안지역 공동체신앙 체계를 정리한다. 제5장은 앞서 다룬 관행제(官行祭)와 고을신앙, 마을 제당, 해안지역 마을 동제에서 모셨던 신령들을 종합적으로 교차 분석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논증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맺음말에서 영동지역 마을신앙 현장에서 모신 신령들에 대한 구조적 원리(복합 배치, 위계적 협시, 생업·지형 요인의 결합)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본고는 이 지역에서 모셔진 신령들을 통해 관·민 제의 질서의 지속과 변동 과정을 동시에 포착하는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강원도 영동지역 민속신앙 지형을 민속지적·사학적 맥락에서 재정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관행제(官行祭) 및 고을에서 모셨던 신령(神靈)의 전승과 변화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행해진 관행제 및 고을신앙의 역사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제당으로는 태백산 정상의 천왕사(天王祠)를 비롯하여 읍치(邑治)에 설치된 성황사(城隍祠)·사직단(社稷壇)·여단(厲壇)·선농단(先農壇)·독신묘(肅神廟) 등이 확인된다. 또한 삼척지역 사례를 소개하면, 선조 8년(1575) 삼척도호부 부사 김효원이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자성고(稔盛庫)를 설치하였다는 기록¹은, 당시 관청 주도의 제의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영동지역 각 마을에서 현재까지 전승되는 마을 동제 역시 이러한 전통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마을에서 모시는 성황·여역·토지신은 조선시대 부·목·군·현 단위의 지방 관아가 주도하였던 제의에서 모셨던 주요 신령이었다. 성황사에서는 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셨고, 여단에서는 무주고혼을 위로하고 역질을 방지하기 위한 여역신(厲疫神)을, 사직단(社稷壇)과 이사(里社)에서는 토지신을, 선농단에서는 입춘 무렵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어 풍농을 기원하였다. 비록 이러한 제의가 관행제나 고을신앙의 형태로 직접 전승되지는 않았지만, 성황·여역·토지신을 마을 주신으로 모시는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지역 전역에 폭넓게 계승되고 있다.

특히 성황신은 고려 말 중국에서 유입된 성황신의 의미가 반영되었으나, 규모가 크고 유학을 공부한 식자층(識者層)이 존재한 마을일수록 이를 마을신으로 지속적으로 모시며 마을 안녕을 기원하였다. 대다수 마을에서 성황신은 읍치 성황사의 신격으로 차용하면서도, 중국의 성황신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토지신 역시 관 주도의 제의에서는 사라졌으나, 현지 조사 결과 토지신을 모시는 마을은 여전히 많았다. 마을신

1 許穆, 『陟州誌』, 1662.

양의 유형이 천제당형·서낭당형·산신당형·해서낭당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더라도 토지신을 모신 사례는 폭넓게 분포한다. 이는 토지신을 마을의 터주로 인식하여 모신다는 의미와,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음을 반영한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주재하는 기능을 성황신이 담당하므로, 토지신은 주로 풍농을 기원하는 보조적 성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토지신은 대부분 성황신이나 산신과 함께 모셔진다.

여역신을 모시는 전통 역시 고을신앙의 제도적 형태로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제당이 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서낭당 안에 여역신을 함께 모시는 사례가 많고, 마을 제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질병을 물리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역신을 모신 제의 전통은 여전히 폭넓게 계승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는 기록도 다수 확인된다. 현재 기우제를 올리는 마을은 거의 없지만, 1980년대까지 기우제를 행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척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행제(官行祭)와는 별도로 『삼척부읍지』에 수록된 남효온의 기록에 따르면, 매년 3·4·5월 중 길일(吉日)을 택하여 무당을 청해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현의 『허백당집』에는 매년 4월 8일 태백산신이 읍 성황에 내려온다고 하여 읍민들이 이를 성대히 맞이하고, 5월 5일에는 산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초곡·선흥·미로 등지에서 단오 무렵 무당을 불러 마을굿을 행하는 사례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와 같이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제

의 전통은,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마을 단위의 동제 형태로 재편되어 성황신·여역신·토지신 등 주요 신령을 모시는 마을 동제로 정착하였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삼척읍치성황사 전경(현재 성북동 서낭당)



〈그림 2〉 삼척읍치성황사 내 성황 위패

3. 마을 제당에서 모신 신령(神靈)

강원도 영동 지역의 다수 마을에서는 제당(祭堂, 신목(神木)이나 제단(祭壇) 형태를 포함한 신앙 공간을 설치하고, 그곳에 마을의 안녕과 복(福)을 관장하는 신령을 모셔 동제를 지속하였다. 그 연원과 성격은 다양하나, 대체로 성황신, 즉 서낭신이라 불리는 신령을 주신(主神)으로 모셨으며, 여기에 천신(天神)·산신(山神)·토지신(土地神)·여역신(厲疫神)·용왕(龍王)·수부·객귀 등 다양한 신령이

2 김도현, 「강원도지역 邑治 城隍祠 考察」, 『朝鮮史研究』 14, 조선사연구회, 2005;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함께 모셔졌다.

이들은 기능적으로 마을을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守護神), 풍요와 복을 가져오는 길상신(吉祥神), 제대로 받들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는 원혼신(冤魂神), 경계와 통행의 질서를 관장하는 경계신(境界神), 성황신이나 산신을 보좌하는 보좌신(補佐神), 마을의 개창자나 선조를 기리는 조상신(祖上神), 그리고 마을 주변을 배회하는 객귀(客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령 구성이 마을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각 마을이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 조건, 그리고 주민들이 신령에게 기원하는 바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신격의 위계와 기능에 따라 상당신(上堂神)과 하당신(下堂神)으로 나누어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았으며, 1967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현지 조사 보고서들에서도 이와 같은 제의 구조와 신격 분화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3.1. 마을제당에서 모신 신령들

강원도 영동지역의 마을 제당에서 모셔지는 대표적인 신령은 서낭[城隍]이다. 서낭의 연원을 논할 때 흔히 중국의 성황신(城隍神)을 거론하는데, 이는 고려시대 이후 중국 성황신앙의 영향을 받아 지방 단위를 중심으로 수용된 성황신과, 조선시대 읍치(邑治)에 설치된 성황사(城隍祠)에 봉안된 성황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황신은 오늘날 마을 단위에서 모셔지는 서낭과 마찬가지로 ‘경계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유사성을 지니지만, 실제 신앙 현장에서는 시대적 변동과 지역적 수용의 과정을 거치며 그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한 형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양자를 동일한 범주로 포괄하기보다, 상호 관련성을 인정하되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동지역의 자연마을에서는 서낭·성황·선왕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모셔지는 신령이 확인된다. 이들은 명칭상의 차이를 지니더라도 그 기능과 성격에 있어서

는 대체로 동일한 존재로 인식된다.³

서낭은 경우에 따라 산신이 합사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천신(天神)이나 대왕(大王) 등 여러 신령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서낭’의 어원적 기원과 무관하게, 지역에서는 이를 ‘성황(城隍)’으로 기록하거나 다양한 신격을 포괄하는 일반 명칭으로 활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낭이 단일한 신격으로 고정된 존재라기보다, 지역의 신앙 체계 속에서 지속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동 양상과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신명(神名)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서낭을 모시는 제당은 일반적으로 ‘서낭당’ 또는 ‘성황당’이라 불리며, 마을의 중심부나 경계 지점 등 상징적 공간에 위치한다. 자연마을에서 서낭당을 설치한 목적 또한 단일하지 않고,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외부의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辟邪)의 의미, 나아가 마을의 개창과 관련된 시조를 모신 공간으로도 여긴다.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에서 조사된 사례는 이러한 복합적 신앙 구조를 잘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왜 동네에서 매년 위하나 하면 옛날에 동네에 소 우질이 돌 때에 동네 대표한테 현몽하더라고. 현몽에 말을 타고 신이 오다가 주지로 바로 가더라. 망귀현 재 안 올라오고 안 넘어오고 저쪽 아래 수방으로 마실로 물 따라 올라갔다. 그래 여기는 소 우질이 안 걸렸대요. 여느 데는 우질에 소가 막 쓰러져도 말을 타고 사람이 신이 올라오다가 동막서쪽 올라오다가 망귀현 재 밑에 와서 가지고 망귀현에는 고만 신이 못 올라오게 하나까네 물러서 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라. 주지로 가더라. 주지 저쪽으로는 소 우질이 걸려서 소가 병들어 죽는데 마음은 괜찮았대요. 망귀현은 옛날에 누가 마을을 잊지 않는다고 바

³ 영동 남부지역의 자연 마을에서 모시는 주요 신령인 서낭·성황·선왕이라 불리우는 신령은 의미나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기에 ‘서낭’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위에 새겨 놓은 것 같은데 잇을 망자 돌아갈 귀자해서 망귀현,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은 지금은 없고 그 돌이 있던 자리에 서낭을 지었는데 그 신이 용하대요.”⁴

이 사례에서 확인되듯, 마을의 서낭당은 본래 각종 역질(疫疾)이나 잡귀(雜鬼) 등 외부의 부정한 세력이 마을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신앙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이런 농촌에는 옛날부터 수구맥이라고 서낭이 다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곧 서낭당이 마을의 경계와 출입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전통적 신앙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언은 서낭당의 일차적 기능이 전염병이나 각종 재앙의 침입을 방지하고,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벽사적(辟邪的) 성격도 있었음을 잘 시사한다.

토지신(土地神)은 성황신(城隍神)과 함께 모셔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내륙 지역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마을일수록 그 신앙적 비중이 높았다. 예컨대 삼척시와 원주 내륙의 여러 마을에서는 서낭신이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수호신(守護神)으로 인식된 반면, 토지신은 농경 활동을 주재하고 풍년을 보장하는 신령으로 여겨졌다. 한편 동해시 동호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신이 단순한 농업 관련 신령에 그치지 않고, 마을 혹은 제당의 터주(터의 주신)로 인식되어 모셔진 사례도 확인된다.

성황신(城隍神)과 함께 인물신(人物神)을 합사(合祀)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가 부랑골 서낭당에서는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우계(羽溪) 이씨의 조상을 서낭과 함께 봉안하고 있으며, 이는 개촌(開村) 시조를 마을의 수호신과 병치시켜 제의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곡면 풍곡리의 큰서낭에서는 생전에 서낭을 정성껏 받들던 천씨(千氏) 조상을 ‘수부’라 하여 서낭과 함께 제당 내에 모셨다. 이처럼 서낭과 함께 제당 안에 조상신을 봉안하는 사례는, 마을 신앙의 주체가 초월적 신령에서 인

간의 선조로 확장되는 신격 변동의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삼척시 사직동 서낭당에서는 이씨대인(李氏大人)을 비롯하여 성황대인(城隍大人), 별성대인(別星大人), 시기대인(時氣大人) 등이 함께 모셔져 있다. 이는 마을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조상 인물과 더불어, 자연적 요소를 인격화한 신격을 공동으로 봉안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동지역의 서낭신앙이 단순한 자연신 중심의 체계에 머물지 않고, 마을의 역사와 혈연적 기억을 포섭하면서 자연물을 인격신화(人格神化)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마을을 개창하거나 제의를 주관하던 인물이 사후에 신격화되어 서낭 또는 산신(山神)을 보좌하는 수부신으로 좌정하는 관습은 영동 남부 산간 지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조상 숭배와 마을 수호신앙이 결합하여 형성된 복합적 신앙 구조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을 신앙 체계가 초월적 신격과 인간적 기억의 결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황신(城隍神)·토지신(土地神)·여역신(厲疫神)을 함께 모신 서낭당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와 이천리, 노곡면 상·중·하마읍리 등지에서는 마을 입구에 제당을 설치하고,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전염병을 차단하는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삼분(三分) 신령 체계는 조선시대 관행제(官行祭)를 구성하였던 성황사(城隍祠)·사직단(社稷壇)·여단(厲壇) 등 공적 제의 구조가 하나의 민간 제당 안으로 통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복합 신앙 체계는 마을 규모가 크고 경제적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마을 제의의 기능이 단순한 벽사(辟邪)를 넘어, 지역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동체 통합을 상징적으로 매개하는 사회적 장치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한다.

양양도호부에서 매년 정해진 의례 절차에 따라 여제

4 김진순, 『삼척민속지 III (노곡)』, 삼척문화원, 2000.

(厲祭)를 거행하였다는 기록은, 조선 후기 사회가 역질(疫疾)과 같은 전염병을 극도로 경계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사실은 여역신(厲疫神)이 성황신(城隍神)·토지신(土地神)과 더불어 지역 신앙 체계 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된다. 즉, 국가 차원의 관행제가 민간 제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재앙을 구축하기 위해 모셔진 신령 기능을 넘어 마을의 경계와 생명 질서를 수호하는 신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성황신(城隍神)·토지신(土地神)과 함께 단군(檀君)을 봉안한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 경우 단군은 마을의 시조적 존재로서, 성황신과 토지신의 기능적 역할을 넘어 마을의 기원을 상징하는 시조신(始祖神)으로 병치되어 함께 모셔졌다. 또한 삼척시 정상동의 ‘할머니 서낭’ 사례에서는 오방신(五方神)을 함께 모셔서 사방의 불길한 기운을 차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서낭신이 공간적 경계를 수호하는 동시에, 방위 신앙과 결합하여 재앙을 방지하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천신(天神)을 위하는 제당 또한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된다.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와 궁촌리, 원덕읍 월천리·기곡리·선곡곡, 그리고 갈경산 일대에서는 천신을 모시고 기우제(祈雨祭)를 거행하였으며, 이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농사의 순조로움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제의 형태로 자리하였다. 또한 태백시 삼수동 절골과 백산동 번지당

골에서는 천신과 산신(山神)을 함께 봉안하여, 상위의 하늘신과 지역의 산신을 병치(竝置)하는 이중적 신앙 구조를 형성하였다.

한편 동해시 동호동의 사례에서는 천신을 중심으로 성황신(城隍神)과 토지신(土地神)을 함께 모셔, 천제당(天祭堂)이 하위 마을 제당의 기능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신앙 구조를 이루었다. 이는 천신 신앙이 단순히 기우(祈雨)나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적 차원을 넘어, 지역 신령 체계의 최고위 신격으로 기능하며 마을 제의 전체를 통합하는 상위 구조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천신(天神)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이후에는 성황신(城隍神)이나 토지신(土地神)만이 남아 제의의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제의 체계가 다신적(多神的) 구조에서 단일 신격 중심으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동 양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천신이 상위 신격으로서 지녔던 보편적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마을 공동체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성황신·토지신 중심의 실질적 제의 체계로 전환된 것은, 신앙의 생활화(生活化)와 지역화(地域化)가 심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신당(山神堂)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신(山神)을 주신(主神)으로 모셨다. 삼척시 도경 다복산 산신당에서는 해당 산의 산신령을 봉안하였으며, 태백시 통동·백산동·철암동 일대에서는 연화산 산신령을 위하였다. 또한 도계읍 전두리 산신당의 경우에는 태백산 산신령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처럼 특정 산의 권역에 속한 마을일수록 그 산의 주령(主嶺)을 형성한 산신을 위하는 관습이 확인된다. 이는 산을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마을의 생태적 기반이자 초자연적 존재로서 물을 매개로 한 신성성(神聖性)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 민속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산신(山神)과 성황신(城隍神)을 함께 모시던 제의 구조가 점차 변모하여, 산신이 탈락하고

5 『各司謄錄』에서 哲宗 7年(1856년) 중앙의 예조로 보낸 行祭 관련 문서에는 ‘7월부터 12월 사이의 각도의 각종 제사는 … 성황발고제는 7월 12일, 여제는 7월 15일에 지내며, … 성황발고제는 9월 28일 여제는 10월 1일 지낸다. …’라고 하였으며, 1857년(丁巳年) 1월부터 5월 사이 行祭事實 보고에는 ‘… 여제는 3월 11일(淸明日)에 지내는데, 성황발고제는 여제 3일 전인 3월 8일에 지낸다. …’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1년에 3차례 지내던 여제에 앞서 성황사에서 무사귀신들에게 제사를 알리는 발고제를 3일 전에 지냈음을 알 수 있다. 고종대에는 이를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양양문화원(편), 『各司謄錄을 통해 본 襄陽』, 양양문화원, 2003).

성황신만 남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영월군 상동면 꿀뚜바우 서낭당, 삼척시 가곡면 떠발골, 도계읍 도계리 성황당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민들은 산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낭으로 좌정(坐定)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⁶ 삼척시 풍곡리의 큰서낭 또한 태백산신이 내려와 서낭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⁷

이러한 신격 변동은 마을신앙의 단순화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지역 공동체의 신령 체계가 산신(山神) 중심에서 서낭(城隍)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용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서낭이 산신의 속성과 기능을 흡수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 재정립된 것은, 마을 신앙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신격 체계로 수렴되어 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마을 신앙이 시대적 환경과 공동체의 생활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스스로 조정·재구성되어 온 동태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산신(山神)과 함께 다른 신령을 병행하여 모신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삼척시 노곡면 상월산리 서낭당에서는 산신과 함께 서낭신(城隍神)·토지신(土地神)을 봉안하였으며, 도계읍 전두3리 성황당에서는 산신의 화상(畫像)을 신체(神體)로 삼아 성황신과 김유신 장군의 화상을 함께 위하였다. 도계읍 심포리에서는 산신과 더불어 성황신·장군신을 모셨고, 신기면 서하리 서낭당에서는 산신과 서낭신·토지신을 함께 봉안하였다.

한편 하장면 추동리의 경우에는 태백산신령과 두타산신령을 동시에 모시면서 여역신(厲疫神)까지 함께 위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한 마을의 제당에 두 산의 산신을 동시에 봉안하는 예는 드물고, 여역신까지 병행하여 모신 것은 더욱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신앙 구조는 마을 공동체가 주변의 지리적 환경과 신앙적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각 신령의 위계와 기능을 조화롭게 포섭하려는 신앙적 실천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처럼 영동지역의 마을 제당은 단일한 신령을 중심으로 한 제의 구조가 아니라, 서낭신[城隍神]을 주축으로 토지신(土地神)·산신(山神)·천신(天神)·여역신(厲疫神)을 비롯하여 조상신(祖上神)·장군신(將軍神)·수부 등이 결합된 복합적 신앙 체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복합 구조는 마을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의 차원을 넘어, 농업 생산의 안정과 재난의 방지, 조상 숭배와 경계 의식, 그리고 풍요 기원 등 공동체의 실질적 생활 기반과 긴밀히 결합된 사회문화적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삼척시 점리 천제당 내 천신 위목(2015년)



〈그림 4〉 함백산 절골 천제당에 모신 천신과 함백산신(2009년)

6 현장 조사 결과 산신이 서낭화 되었거나 산신이 탈락하여 서낭만을 모신 것이 아니라 산신이 지닌 신앙적 기능을 성황에 흡수하여 모신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7 마을 주민들은 이와 같이 인식하지만, 고성을 비롯하여 원주, 홍천, 인제 등 산신과 성황을 모셨던 사례를 폭넓게 조사한 결과 마을 내에서 산신을 모신 전통이 점차 약해지면서 산신이 지닌 신앙적 기능을 성황에 흡수하여 마을 제사를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산신이 지닌 기능을 성황이 대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山神의 성격」, 『종교학연구』 37, 한국종교학연구회, 2019; 김도현, 「원주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神靈) 연구」, 『윤곡논총』 18, 윤곡학회, 2025.



〈그림 5〉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내 태백산신 위패



〈그림 9〉 태백어평 서낭당 내 단종대왕 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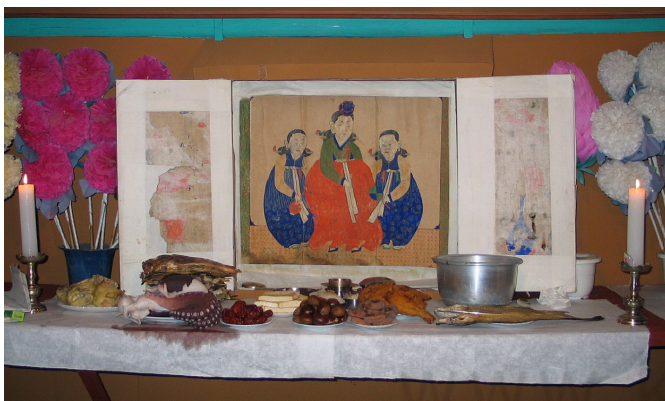
〈그림 6〉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 1리 성황당 내에 모신 성황신, 토지신, 여역신



〈그림 10〉 삼척시 내미로리 종현동 서낭당 내 수부신



〈그림 7〉 삼척시 사직동 서낭당 내 위패(토지신, 성황신, 용왕신)



〈그림 8〉 강릉 심곡리 성황당에 당신도 형태로 모신 성황신

3.2. 마을에서 모신 조상신

마을에서 모셔지는 조상신(祖上神)은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교적 조상 숭배와 성격을 달리한다. 유교사회에서 조상을 모시는 전통이 가문 중심의 위계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의 체계라면, 마을신앙에서의 조상신은 특정 가문의 조상을 넘어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주신(主神)을 보좌하는 집단적 신격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조상신은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 그리고 제의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개인적 혈연 신앙을 초월한 공동체적 조상 숭배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모셔진 조상신의 위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마을을 개창하거나 번성시켜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주관하는 주신(主神)으로 좌정한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다수의 마을이 연합된 공동체 신앙에서는 드물지만, 특정 역사적 인물을 마을 수호신으로 신격화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둘째, 특별한 제의적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마을의 주신인 산신(山神)이나 성황신(城隍神)을 협시(挾侍)하는 보좌적 신령으로 좌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주신을 보좌하는 수부로 좌정하는 유형이 있다. 이때 주신은 대체로 천신(天神)이나 산신 계열로 이해되며, 수부로 좌정하는 존재는 마을을 처음 개창하였거나, 이장 등 마을 제의를 성실히 주관하던 인물들이 해당된다.

넷째, 생전의 행적과 관련하여 마을 내에서 갈등을 일으켰거나 불우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 원혼(冤魂)으로 위하여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원혼 위령(慰靈)은 마을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위무제(慰撫祭)’적 성격을 띠며, 후사가 없는 조상을 마을 제당에 봉안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상을 기리는 유교적 관념과도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마을 신앙 체계 속 조상신 숭배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정신앙에서의 조상신은 기제사의 대상과는 달리, 세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조상 가운데 특정 인물을 안위의 주체로 좌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상신은 대체로 무속적 신앙 행위[점사(占辭) 또는 굿(巫祭)]를 통해 모셔지며, 이후 대물림되는 형태로 이어진다. 가정신앙에서 조상신으로 봉안되는 인물은 윗대 조상으로 막연히 인식되는 경우, 점사를 통해 모셔 달라고 한 조상, 점사를 통해 탈(頤)을 일으킨 조상, 벼슬을 지내 가문에 공적을 남긴 조상, 무속인으로 활동했거나 자손을 위해 치성을 드리던 조상, 남편의 전처나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은 부인, 요절한 인물, 사고사한 인물, 그리고 기제사의 직접 대상인 조상 등으로 구분된다.⁸

이처럼 마을 제당에 모셔진 조상신은 단순히 혈연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주신·보좌신·수부·원혼 등 다양한 위상과 형태로 나타난다. 그 기능 또한 개인적 신앙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종교적 장치로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해안지역에서 모신 신령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마을에서 모셔지는 신령은 마을 주민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豊漁)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 지역에서 상당신(上堂神)으로 모셔지는 주된 신령은 산신(山神)이나 성황신(城隍神)이며, 마을 내 하당(下堂)의 성격을 지닌 해신당(海神堂)에서는 해신제(海神祭)가 봉행되거나, 바닷가 및 특정 지점에서 바다와 관련된 별도의 하위 제차(祭次)가 진행되는 전통도 확인된다. 이때 종교적 감응을 보다 직접적으로 얻기 위해 모시는 신령은 해령(海靈)·해신(海神)·용왕(龍王)·해서낭[海城隍]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원도 고성을 비롯하여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등 해안지역의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 나아가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들 마을에서 모셔지는 신령은 성황(城隍) 또는 할아버지서낭·할머니서낭 등의 형태로 불리며,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은 ‘소지(燒紙)’를 통한 서원(誓願)이나, 수년마다 거행되는 별신굿(別神굿, 서낭굿 또는 풍어제)을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되었다. 별신굿은 주민들의 신앙적 요청과 공동체의 소망이 응집된 제의로, 바다와 관련된 위기나 재난, 풍어 기원 등 현실적 염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례로 기능하였다.

또한 별도의 해신당이나 해령당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의 경우에도, 상당신으로 산신이나 성황을 모시고 이들

8 이채원, 「조상신앙의 지역적 양상과 성격에 대한 시험적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12(2), 역사문화학회, 2009.

에게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였다. 고성군 문암리, 속초시 외옹치, 양양군 남애리 등지에서는 마을의 중심 제당에서 이러한 제의가 곧바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바다 신령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산신이나 성황신이 그 역할을 겸하도록 한 사례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搜討)에 나섰던 수토사들이 항해의 안전을 빌기 위해 산신에게 제를 올렸다는 기록 역시, 동해안 지역에서 산신이 해양 안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바다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의 동제에서 주로 모셔진 신령은 산신, 성황, 할아버지서낭, 할머니서낭 등으로, 이는 내륙 지역에서 모셔지는 신령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바다라는 특수한 자연환경과 어업이라는 생업 구조가 결합되면서 해신(海神), 용왕(龍王), 해서낭 등 해양 관련 신령이 보강되는 양상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즉, 동해안 지역에서 모셔지는 신령 체계는 천신(天神)·산신(山神)·서낭(城隍)·용왕(海神)·해서낭·수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는 내륙 신앙 체계 위에 해양적 요소가 중첩되어 형성된 복합적 구조라 할 수 있다.

동해안지역 마을제당에서 모신 각 신령의 위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천신(天神)

강원도 삼척 해안 지역을 대표 사례로 살펴보면, 근덕면 초곡리, 원덕읍 호산리와 월천3리 등에서 천신(天神)을 모신 사례가 확인된다. 이들 마을에서는 천신을 상당신(上堂神)으로 모셔 마을 제사를 봉행하였으며, 동제의 주요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 그리고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데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祭天) 전통은 고조선 이래 부여·고구려·삼한·동예를 거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

어 왔다.⁹ 여기서 말하는 제천(祭天) 또는 천제(天祭)는 최고신으로서의 천신을 대상으로 한 제의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한국의 제천의례를 통시대적으로 고찰한 서영대의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천의례의 전개, 하늘에 대한 관념, 그리고 제천 개념의 변천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¹⁰

현재까지 알려진 제천(祭天) 의례, 즉 하늘에 대한 제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¹ 첫째,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혹은 특정 산의 권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천제(天祭)이다.¹² 둘째, 마을 단위 또는 여러 마을이 연합하여 행한 천제로, 강원도 삼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된다.¹³ 셋째, 개

9 여기에서 祭天 또는 天祭는 최고신으로서의 天神이 포함된 제사를 일반적으로 이른다. 한국의 제천의례를 통시대적으로 소개한 서영대교수의 다음 글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천과 관련한 연구 성과, 그리고 하늘에 대한 관념과 제천의 개념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서영대, 「한국의 제천의례」,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 경인문화사, 2009, 48~61쪽.

10 위의 글.

11 필자는 하늘[天]에 대한 祭儀 사례를 다음 논문에서 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회』 23, 한국성곽학회, 2013. 한편 최종성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하늘 경험의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주론적 차원’, ‘지역적 차원’, ‘몸의 차원’으로 구분한 후, 그 실천 단위를 각각 ‘제국(국가)/반국가’, ‘고을, 마을’, ‘개인’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성, 「천제와 산천제」, 『제 2차 금한동천제』, 금한동천제보존회, 2014.

12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性과 文化財의 位相」, 『太白文化』 7, 태백문화원, 1993; 박내경, 「無等山 天祭壇 開天祭 信仰考」, 『남도민속연구』 11, 남도민속학회, 2005; 김도현,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 태백시·강원도민일보, 2008; 김도현, 「태백산 天祭와 儀禮」,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서영대 외,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 경인문화사, 2009; 김도현, 「태백산 천제단과 마니산 참성단 儀禮 비교」,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회』 23, 한국성곽학회, 2013; 김덕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神祠와 天祭壇」, 『역사학연구』 49, 호남학회, 2013.

13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함께 천제를 행한 사례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나경수, 「지남리 지복마을의 민속」, 『전남민속연구(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 보고)』 창간호, 1991; 나경수,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 조사 연구」, 『민속학연구』 10, 국립민속박물관, 2002; 김도현, 「동해시 동호동 천제단 운영과 그 성격」, 『박물관지』 14, 강원대 중앙박물관, 2007; 김도현, 「태백시 咸白山 절골 天祭堂 운영 양상과 그 성격」, 『강원문화연구』 30,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9;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창식, 「진천지역 금한동 천제 연구」, 『충북학』 12, 충북학연구소, 2010; 박흥주, 「천제(天祭)로서의 호계마을 별신제 연구」, 『비교민

인이나 특정 종교 집단 차원에서 행해진 천제로, 태백산 권역에서 활동한 동학교도들의 제천 의례가 대표적 사례이다.¹⁴

비록 마을 단위의 천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성과는 아직 풍부하지 않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그 사례가 확인되며 일부는 분석 논문으로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살펴볼 때, 마을에서 모셔지는 천신(天神)은 일반적으로 마을신으로 모셔지는 서낭신(城隍神)이나 산신(山神)보다 상위의 능력과 권위를 지닌 신령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 천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시거나, 사람 또는 가축의 역병을 물리치고 충재(蟲災)를 방지하기 위한 제의, 혹은 거리고사 등의 의례에서도 천신을 상당신(上堂神)으로 받들었다.

천신을 모시는 천제당(天祭堂) 또는 천제단(天祭壇)에서의 신앙 구조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천신만을 단독으로 모시는 경우, 둘째, 천신과 산신을 함께 모시는 경우, 셋째, 천신과 기타 여러 신령을 병행하여 모시는 경우이다.

삼척 해안 지역을 비롯하여 천신을 모시는 다수의 마을은 주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즉, 제의 체계상 천신을 상당신으로 받들지만, 실제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적 염원[풍어(豐漁), 풍농(豐農), 역병 방지 등]에 대해서는 성황신이나 산신 등 보다 생활적·현세적 성격을 지닌 신령에게 기원을 집중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 단위의 천제는 하늘에 대한 제의가 지역적 삶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고, 다층적 신격 체계 속에 통합된 형태로 변용된 신앙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2. 산신(山神)

한국에서 산신(山神)이 지니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산신이 좌정하는 공간적 위상과 신격(神格)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 바 있다¹⁵

〈표〉 산신이 지닌 의미의 구분

구분	좌정한 공간	성격		비고
		존재론	기능론	
산신 (山神)	· 주로 산과 산자락	‘신령-인간’ 사이의 위계적 관계 주목(계급성)	지리적 공간 주재	영역을 관장하는 성황신과 등치 [교대] 가능
산령 (山靈) [山王]	· 주로 산과 산자락 · 산령을 개인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만든 신당(神堂) · 산에서 발현된 신성성이 지나가는 곳	‘신령-인간’의 직접적 관계에 주목 (인격성) / 감응(感應)	길흉화복 관장, 신령에게 귀의	산치성 산기도
천왕 (天王)	· 주로 산과 산자락 · 천왕을 모신 주체들에 의해 다른 지역 산이나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여 만든 성소	신화상의 시조와의 시원적 계보에 주목(신화성)	시조와 후손과의 연결을 매개로 상징된 직·간접적인 초월적 염원을 관장·총괄	여산신(女山神)으로 모셔지는 사례

강원도 영동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모셔지는 산령(山靈)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의미들은 복합적으로 인식되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성을 비롯하여 양양, 태백, 삼척 등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신이 ‘산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이 성황신(城隍神)에 이입(移入)되면서 마을에서 산신을 독립적으로 모시는 전통이 약화되거나 소멸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에서 모셔지는 신령이 표면적으로는 ‘서낭’이나 ‘성황’으로 지칭되더라도, 그 내적 성격에는 여전히 산신이 지닌 신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김도현, 「마을신앙으로서의 금한동 天祭 성격」, 『제2차 금한동천제』, 금한동천제보존회, 2014;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32,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¹⁴ 김도현,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 태백시·강원도민일보, 2008; 김도현, 「1870년대 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 19,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

¹⁵ 김도현,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山神의 성격」, 『종교학연구』 37, 한국종교학연구회, 2019.

4.3. 서낭(성황)

공간을 관장하거나 그 경계를 주재하는 신령으로는 서낭, 국시[국사, 국수], 짐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신령은 강원도 영동지역의 민속신앙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셔지고 있다. 삼척을 비롯한 영동 지역의 자연마을들은 대부분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형성된 마을들이 많다. 이 마을들은 주로 경상북도, 삼척 읍내, 강릉 등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개창되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을 처음 개창한 이주민을 서낭당에 서낭신으로 모신 사례가 확인되지만, 다수의 경우 생전에 산신이나 서낭을 정성껏 모시던 인물이 사후에 수부로 추앙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낭당은 마을의 개창과 더불어 조성된 동제 공간으로, 마을의 존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삼척군(현재의 삼척시·태백시·동해시) 소재 제당 162개소 가운데 124개가 서낭당(城隍堂)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⁶ 또한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의 전국 마을 제당 조사 통계에 의하면,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지역의 제당 중 서낭제(城隍祭)를 봉행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⁷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영동지역의 산간지방뿐 아니라 농촌·어촌 대부분의 마을에서 서낭신을 모시고 서낭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안 마을의 경우, 어민들이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며 조성한 제당을 ‘해서낭’ 또는 ‘해서낭당’이라 부른다. 이는 서낭신을 중심으로 한 마을 제의가 영동지역 민속신앙의 보편적 양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¹⁸

조선시대에 삼척이 행정적으로 관장하였던 울릉도의

사례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성황신을 모신 전통은 울릉군 학포동·태하동·나리분지 등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서 확인되며, 이는 해당 지역이 울릉도 내에서도 비교적 일찍 정착이 이루어진 곳으로, 육지 문화 요소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태하동에서 성황당으로도 불리우는 성하신당에 전승되는 전설은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사이의 교류 및 문화적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어민들은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구입한 후 반드시 태하동 성하신당을 찾아 제사를 올린 뒤 마을로 돌아와 별도의 제의를 지내는 관습을 유지해 왔다. 울릉도 주민들은 이를 마을의 규범적 전통으로 인식하며,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해신당에서의 제의가 존재하더라도 성하신당에서 먼저 제사를 올려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¹⁹ 이러한 인식과 실천은 성황당으로도 불리우는 성하신당이 단순한 마을 제당을 넘어, 원혼(冤魂)을 위무하고 재실(齋室)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종합적 신앙 공간으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한다.

4.4. 용왕(龍王, 海神)

용왕은 신라시대 이래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마을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豐漁)를 기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모셔져 온 대표적 신령이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의 마을 제당에서는 주신(主神)인 성황신(城隍神)을 협시(挾侍)하는 형태로 용왕을 함께 모시고 있으며, 고성 문암리를 비롯한 여러 해안 마을에서도 하당제(下堂祭)의 일환으로 용왕제를 봉행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해신(海神)을 용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다에서 행해지는 용왕제의 종교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해신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16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 강원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9.

17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7.

18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9 김도현, 「울릉도 수토 기록을 통해 본 東海에서의 祭儀 연구」, 『울진, 수토와 월송포진성』, 울진문화원·한국이사부학회, 2023; 김도현, 「동해안 지역에서 모시는 신령 연구: 삼척과 울릉도를 중심으로」, 『동해지역 해방(海防)과 삼척포진』, 한국이사부학회, 2024.

있다.

용왕은 바다에서는 안전과 풍어를 보장하는 신령으로, 내륙에서는 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인식된다. 특히 태백산 일대에서는 천신(天神)이나 산령(山靈)에게 기도할 때 용왕당(龍王堂)에서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 이는 용왕이 물[水]을 통해 여러 신령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적 성격을 지닌 신격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해안 지역에는 바다 자체의 신령성(神靈性)에 의탁하는 해령(海靈) 신앙도 존재한다. 예컨대 강릉 안인진의 어민들은 바닷가 제당을 ‘해령사(海靈祠)’라 부르며 동제를 지내는데, 이는 산령(山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바다가 지닌 신성한 힘에 직접적으로 의지하려는 종교적 실천으로 해석된다.

또한 ‘해신(海神)’이라는 명칭은 바다를 관장하는 보편적 신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에서도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령으로 자주 등장한다. 『북교기우제문(北郊祈雨祭文)』과 『홍재전서(弘齋全書)』의 「제해신문(祭海神文)」은 해신에게 제사를 올린 대표적인 사례이며, 고려·조선시대에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들의 사행일기를 집성한 『해행총재(海行摠載)』에도 해신 제사와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 자료들은 한국 사회에서 해신 신앙이 이미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 자리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해당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해신(海神) 관련 자료

① 北郊祈雨諸海神祭文²⁰

② 海行摠載²¹

③ 祭海神文 南玉撰²²

④ 耽羅船粟時祭南海神文²³ (『홍재전서』 23 제문 5)

해신(海神) 신앙은 일본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해신 제사 유적은 주로 해안이나 섬의 돌출된 곳(岬), 사구(砂丘), 구릉(丘陵), 또는 산사면(山斜面)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입지는 바다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한반도 서해안의 부안 죽막동(竹幕洞) 유적과도 유사한 점으로,²⁴ 양국이 바다를 교섭과 경제적 활동의 장(場)으로 공유한 결과이자, 어로(漁撈) 문화와 해양 신앙이라는 공통된 생활 기반 위에서 유사한 신관(神觀)이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동해안 지역의 마을신앙에서도 용왕제(龍王祭)는 여러 유형으로 전승된다. 일부 마을에서는 성황신(城隍神)이나 토지신(土地神)을 모신 서낭당(城隍堂)에서 용왕(龍王)을 협시(挾侍) 신격으로 함께 봉안하기도 한다. 예컨대 삼

작 奉使時作),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 海東諸國記〉, 김성일(金誠一)의 〈해사록 海錄〉, 강항(姜沆)의 〈간양록 看羊錄〉, 제2책에는 경섬(慶暉)의 〈해사록〉, 오윤겸(吳允謙)의 〈동사상일록 東上日錄〉,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 扶桑錄〉, 임광(任)의 〈병자일본일기 丙子日本日記〉, 이선달(李先達)의 〈표주록 漂舟錄〉, 김세렴(金世濂)의 〈해사록〉(상), 제3책에는 김세렴의 〈해사록〉(하), 황호(黃)의 〈동사록 東錄〉, 신유(申濡)의 〈해상록 海上錄〉, 작자 미상의 〈계미년동사일기 癸未年東日記〉, 남용익(南龍翼)의 〈부상록〉, 제4책에는 홍역사(洪譯士)의 〈동사록〉, 김지남(金指南)의 〈동사일록〉, 조엄(趙)의 〈해사일기 海日記〉 등이 실려 있다. 대부분 일기형식의 산문과 시로 되어 있다. 정몽주의 〈봉사시작〉은 일본 사행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며, 1377년(우왕 3) 9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7월에 돌아오면서 쓴 시이다. 일본의 실정을 알려주는 내용의 시 12수이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김성일의 〈해사록〉, 이경직의 〈부상록〉, 김세렴의 〈해사록〉, 황호의 〈동사록〉, 김지남의 〈동사일록〉 등은 대부분 사행일기이며, 일본의 문물제도, 일본인과의 대화, 견문, 사행길의 감회 등을 기록했다. 강항의 〈간양록〉은 임진왜란 후 일본에서 4년 동안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쓴 사행문이며, 이선달(李先達)의 〈표주록 漂舟錄〉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까지 표류하다가 일본 관원들에게 구조되어 귀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인들이 일본을 보는 시각 및 일본인들이 조선을 보는 시각, 일본의 문물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 1974년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 국역되었다. 한편 작자·연대 미상의 〈해행총재〉(28책)가 전하는데, 수록된 저술이 조선고서간행회 편인 이 책과 큰 차이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2 해신(海神)에게 제사한 글[남옥(南玉) 지음].

23 탐라(耽羅)로 보낼 곡식을 배에 실을 때 남해신(南海神)에게 제사한 글.

24 유병하, 「부안 죽막동유적의 海神과 제사」,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20 북교단(北郊壇)에서 여러 해신(海神)에게 고하는 기우제문.

21 해사일기 제문.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일본 통신사들의 일기와 포로 및 표류 등으로 일본을 왕래한 사람들의 기행록을 모은 총서. 4책. 활자양장본. 1914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조선고서대계(朝鮮群書大系) 속 속편(續編) 제3~6집에 실려 있다. 서문과 발문 없이 20여 편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을 보면, 제1책에 정몽주(鄭夢周)의 〈봉사시

척시 사직동 서낭당과 근덕면 덕산리 성황당의 경우, 별도의 용왕제가 행해지지 않고 마을의 서낭제(城隍祭)에 용왕을 포함하여 함께 기원하는 형태를 보인다.²⁵ 이는 용왕이 독립된 제의 대상이라기보다, 마을 주신(主神)의 관할 영역에 통합된 신격(神格)으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삼척시 사직동 성황고사에서 모신 신령들[토지·성황·용왕]을 위한 제물 진설(2011년)

또 다른 유형으로는 해신당(海神堂)이라 불리는 별도의 제당을 마련하여 용왕(龍王)을 주신(主神)으로 모시는 사례가 있다. 삼척시 부남2리에서 정월과 10월 초하루에 서낭제를 마친 뒤 용왕제를 별도로 봉행한다. 이때 제의 절차에서는 용왕상을 따로 마련하여 밥 한 양푼에 여러 개의 수저를 꽂고, 술과 포(脯)를 곁들여 올리는 제차(祭次)가 행해진다. 이러한 진설(陳設)은 해신을 향한 공양의 의미와 함께 공동체의 안녕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신앙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동해안 연안의 다수 마을에서는 동제를 마친 뒤, 바닷가 제단에서 별도의 용왕제를 봉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의 경

우, 매년 서낭제[城隍祭]를 마친 후 포구로 이동하여 간소한 제물을 차리고 바다에 ‘용왕밥’을 헌식(獻食)하는데, 이를 용왕제라 칭한다. 이러한 제의는 마을 공동체가 육지의 신(城隍)과 더불어 해신(海神)에게도 안녕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복합적 신앙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²⁶

동해안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용왕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주기마다 거행되는 마을굿·별신굿(別神굿)·풍어제(豐漁祭) 등에서 용왕을 위한 거리가 별도로 마련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의례에서는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며, 마을의 집단적 안녕과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의 단오굿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단오에 마을굿을 열며, 주민들은 이를 ‘용왕제’ 또는 ‘용왕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삼척시 초곡리 단오굿 역시 용왕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초곡리 단오굿은 첫째 날 성황당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서낭굿으로 시작되고, 둘째 날에는 바닷가에 굿당을 세워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굿이 진행된다. 굿 절차는 ‘부정굿 → 용왕굿 → 용동우굿 → 뱃노래굿 → 거리굿’의 순으로 이어지며, 이는 어로 활동 중 사망한 어민의 원혼을 위무하는 동시에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복합적 성격의 의례로 기능한다.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의 별신제 또한 용왕굿을 주요 거리로 포함한다. 이 마을에서는 ‘용왕굿 → 용또 타기 → 용떡 띄우기’의 순서로 용왕굿이 진행되며, 무녀(巫女)는 용왕이 어민에게는 풍요와 안전을, 농민에게는 단비를 내려주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절차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선박의 무사 항해, 풍어, 가족의 건강 등을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바다에 ‘용떡’을 띄워 바다신에게 헌

²⁵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로 여겨지는 오십천 하구의 삼척시 사직동 서낭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성황·토지신과 함께 용왕을 위해 형태로 모시고 있다. 또한 매년 정월 대보름 자시에 마을 서낭제를 지내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성황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龍王之神·城隍之神·土地之神이다. 마을 내에 봉황머니당이라 불리는 제당이 있지만 해신당은 없고, 마을 서낭당에 용왕을 城隍神을 협시하는 형태로 모시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마을 서낭제를 지낼 때 용왕을 함께 위함으로서 별도의 용왕제를 지내지 않는다. 김도현, 「동해안지역의 민간신앙 전통과 이사부」, 『이사부와 동해』 11, 한국이사부학회, 2015.

²⁶ 김도현, 「강원도 고성 문암리 서낭제」, 『강원도 민간신앙 기초조사 자료집』, 국립무형유산원, 2016.

식(獻食)한다. 때로는 어로 활동 중 사망한 가족을 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용왕상을 준비하여 원혼을 위무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동체적 마을곳의 구조 속에 개인적 염원이 결합된 형태로, 해상 안전과 어로 활동 중 사망한 가족을 초도(超度)하기 위한 신앙적 필요가 공동체 의례에 통합된 사례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동해안 지역의 용왕 신앙은 단순한 풍어제 차원을 넘어,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라는 실질적 욕구와 더불어 바다에서 사망한 어민에 대한 위무, 그리고 생명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마을 내 우물, 샘, 용단지 등을 중심으로 물의 신성(神聖)과 복덕(福德),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개인적 신앙 형태가 나타나며, 마을 단위에서는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집단적 제의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용왕은 동해안 지역에서 물, 재물, 생명력, 그리고 인간과 초월적 존재를 매개하는 신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해서낭

‘해서낭’은 삼척을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확인되는 독특한 신앙 형태로, 삼척 지역에서는 총 7개 마을에서 그 흔적이 보고된다. 이 가운데 궁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향나무를 신수(神樹)로 삼아 제단을 설치하고 제의를 행하였다.

마을 공동체 제사 운영 양상을 살펴보면, 궁촌에서는 서낭당과 해신당의 제수를 동등한 수준으로 준비하여 봉행하였으며, 오분리의 경우 어촌계가 독자적으로 제수를 마련하고 동제를 주관하였다. 반면 나머지 다섯 개 마을에서는 마을 성황당에서 동제를 마친 뒤, 간단한 제물을 마련하여 부수적으로 해서낭에게 제사를 올리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해서낭은 마을 공동체가 주신(主神)으로 모시는 서낭(城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과 중요도가 낮은 신격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임원 지역에서 확인되는 정씨 서낭과

고씨 서낭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마을의 큰 성황당에 모셔진 할아버지 서낭의 부인으로 여겨졌으며, 여성적 성격을 지닌 해신당의 주신(主神)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모셔진 신령은 바다의 온순함과 생명력,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 그리고 마을의 평안을 관장하는 존재로 모셔졌다.

삼척 정라진 성황당의 경우, 할머니 서낭당이 정하동의 중심 서낭당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존에 바닷가 여성황사(女城隍祠)에서 모셨던 여서낭이 마을을 대표하는 성황신으로 전환되어 모셔진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해안마을에서 모신 여성적 신격이 마을 공동체 신앙의 중심 체계로 편입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궁촌의 경우, 해신당 아래에 ‘작은 서낭’이라 불리는 별도의 제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는 마을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원혼이 머물고 있다는 무당의 공수를 근거로 조성된 것으로, 주민들은 이 작은 서낭을 궁촌 해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의 신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신격 구조는 해안지역에서 서낭·해신·원혼신이 복합적으로 얹혀 공존하는 신앙 체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해상 사고와 생명 구제라는 현실적 염원이 지역 내 마을신앙 속에서 신격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6. 짐대(서낭)

짐대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경계 지점에 세워진 신성 표지물로, 일반적으로 긴 장대 위에 오리나 기러기의 형상을 새겨 올린 형태를 띤다. 이러한 짐대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비롯하여 남해안과 서해안의 여러 해안 마을에서도 확인된다.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강릉 강문 짐대를 비롯하여 견소동, 옥계 금진, 삼척 임원 등 다수의 해안 마을에 짐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환경과 신앙적 전통에 따라 형태와 제의적 기능에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강릉시 강문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마을에서는 짐대를 ‘진또배기’라 부르며, 음운 변이에 따라 ‘진도박이’라고도 한다. ‘진또’는 ‘진대’ 또는 ‘긴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배기’는 ‘박이’의 변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진또배기’는 ‘나루의 경계에 박아놓은 장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진도(津渡)’는 나루터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로, 짐대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경계성을 상징하는 표식이자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강문동 마을 주민들은 짐대를 신격화하여 ‘짐대성황님’이라 칭하며 신성시한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진또배기 성황목에는 세 마리의 목조 오리가 북쪽을 향해 올려져 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풍재(風災)·수재(水災)·화재(火災)를 차단하고 마을을 수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짐대는 일종의 살대 혹은 액막이대로 인식되어, 마을의 안녕과 경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세워진 짐대는 경계신(境界神)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짐대는 주로 어촌이나 포구와 같이 배가 닿는 육지 마을에 세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동제를 지내는 과정에서는 짐대를 하위 제차(祭次)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간소한 제물을 바치며 그 신령적 존재를 공경한다. 이러한 제의 행위는 짐대가 단순한 경계 표식이 아니라, 마을의 생존과 안녕을 매개하는 신성한 존재이자 경계의 수호신으로 기능함을 잘 보여준다.



〈그림 12〉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짐대와 짐대고사 지내는 장면(2025년)



〈그림 13〉 강릉시 강문마을에서 짐대고사를 지내는 장면(2014년)

4.7. 기타-수부 등

‘수부’는 생전에 마을이나 민속신앙 현장에서 신령을 정성껏 모셨던 무당이나 마을의 원로를 사후(死後)에 신격화하여 제당(祭堂)에 모신 존재이다. 삼척시 초곡마을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에서 수부를 모신 사례가 확인되며, 이는 동해안 지역의 마을신앙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부는 주로 주신(主神)을 보좌하는 신격으로서, 공동체 신앙 체계 내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수부를 위한 제의 절차는 주신에 비해 간소한 편이다. 제의에서는 대체로 술 한 잔을 올리거나 절 한 번으로 예를 표하는 정도에 그치며, 이는 수부가 공동체 신앙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지니되 중심적 권위를 가진 신격으로는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수부는 공동체의 제의 질서 속에서 주신(主神)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점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한편, 무사귀신(無祀鬼神)이나 잡귀(雜鬼)·잡신(雜神)은 축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위해주지 않으면 마을이나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된다. 이에 따라 동해안 해안마을의 대부분 제당에서는 주신을 모신 제의를 마친 뒤, 준비한 제물의 일부를 따로 떼어 헌식(獻食)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위하는 관습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의례는 이들 신령을 마을 제의에 함께 동참시

키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마을 공동체 신앙의 실천 속에서 제도화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즉, 마을 공동체는 제의 행위 속에서 주신·수부·잡신 간의 위계를 조율함으로써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확보하려는 집단적 신앙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5. 영동지역에서 모신 신령이 지닌 의미와 성격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모셔지는 신령들은 관행제(官行祭), 마을 제당(祭堂), 해안지역 마을 신앙이라는 3가지 층위에서 공통성과 차이를 동시에 드러낸다. 각 층위는 제의 주체와 공간, 신격의 위계,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따라 구분되지만, 이들이 형성하는 신앙 구조는 상호 연관되어 지역 신앙 체계의 총체성을 이룬다.

천신(天神)은 국가적 제천(祭天)의 대상에서 비롯되어, 마을 제당으로 이행하면서 상위 신령으로서 여러 마을을 관장하거나 비상 상황을 통괄하는 신격으로 자리하였다. 해안 지역 마을에서도 모시는 신령 가운데 최고의 신격으로 모셔졌다. 이처럼 천신은 ‘상위 통합’과 ‘비상 동원’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산신(山神)은 내륙 마을에서는 주산(主山)의 자원과 안전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모셔졌으며, 때로는 성황신(城隍神)과 합사되어 마을의 주신(主神)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해안 지역에서는 포구 배후의 산당(山堂)을 중심으로 항로의 안전과 어로 활동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가 행해졌으며, 태백산에서는 광역 행로와 교역로의 수호를 담당하는 산령제(山靈祭)로 발전하였다.

즉, 산신은 ‘주산의 영역성(領域性)’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면서도, 태백산에서는 영산(靈山)으로서의 권위와

광역 네트워크의 수호라는 의미가 한층 강화된 신격으로 모셔졌다.

천왕(天王)은 태백산과 태백산에서 발원한 오십천 유역에 있는 마을에서 주로 모셔진 신격으로, 단순히 천신과 산신의 이원 구도에 환원되지 않는다. 천왕은 시조적·교화적 신령으로 기능하며, 천신·산신·성황과 병치되어 영산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 지역과 집안을 아우르는 상징 축이 형성되었다.

성황(城隍)은 영동지역 신앙 체계의 모든 층위에서 중심 신격으로 기능하였다. 관행제(官行祭)에서는 고을의 질서와 행정 단위를 수호하는 공적 수호신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마을 제당에서는 공동체의 안전과 규범을 상징하는 주신(主神)으로 재편되었다. 해안 지역에서는 항해의 안전과 풍어(豐漁)를 주재하는 해양적 성격이 부가되었다.

이처럼 성황은 ‘경계(境界)와 안전(安全)’이라는 공통된 신앙 의미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 환경의 특수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기능이 다층적으로 변용된 대표적 신령이라 할 수 있다.

토지신(土地神)은 본래 국가 제장(祭場)인 사직단(社稷壇)에서 농정(農政)과 풍년(豐年)을 보장하는 신령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제의의 단위가 국가에서 마을로 이행하면서, 토지신은 공동체의 정주(定住)와 생산 기반을 수호하는 터주신(地主神)으로 재편되었다.

해안 지역에서는 농업적 기능이 약화되는 대신, 정주지의 안정과 항만의 안전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변모하였으며, 태백산 일대에서는 경작지의 보전과 수원(水源)의 유지, 임산 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신령으로 모셔졌다.

결국 토지신은 ‘생산과 정주의 기반’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농업·어업·산림 등 지역의 생업 환경에 따라 그 역할의 강조점이 달라진 복합적 성격의 신령이라 할 수 있다.

여역신(厲疫神)은 관행제(官行祭) 시기에는 여단(厲壇)에서 전염병(疫病)과 원혼(冤魂)을 제압하기 위한 공적 제

의의 대상으로 모셔졌다. 이후 마을 제당에 성황신(城隍神)과 함께 모셔져서 역질(疫疾)을 방지하고, 마을제사 또는 거리제에서 이를 주관하는 신령으로 기능하였다.

해안 지역에서는 여역신이 바다에서 사망한 어민의 원혼을 위무하는 의례와 결합되어, 별신굿(別神굿)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거리가 마련되었다.

즉, 여역신은 ‘역병과 원혼의 제압’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해안에서는 수사자(水死者)를 위무할 필요성이라는 지역적 현실에 따라 기능이 변용된 신령이라 할 수 있다.

용왕(龍王)은 관행제(官行祭)에서는 직접적인 제의 비중이 미약하였으나, 마을 제당에서는 하위 신령으로, 해안 지역에서는 핵심적 신격으로 모셔졌다.

해안에서는 항해의 안전과 풍어(豐漁)를 주재하며, 바다에서 사망한 수사자(水死者)의 위무(慰撫)를 담당하였다. 반면 태백산에서는 산중 제의에서 물의 기운을 매개하는 보조적 신격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용왕은 ‘물과 위협의 관리’라는 공통된 기능을 지니면서도, 해안에서는 중심적 신령으로, 태백산에서는 부차적 역할로 위상이 달라지는 상보적 신격 구조를 형성하였다.

해신(海神)·해서낭·짐대는 일부 마을 제당에서는 하위 신령으로, 해안 지역에서는 핵심적 신격으로 모셔졌다. 이들은 항해의 안전과 풍어(豐漁), 수사자(水死者)의 위무(慰撫)를 담당하며, 동시에 마을의 평안과 재난 방지를 기원하는 신격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신령들은 국가 제사나 태백산에서의 제의 전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안 공동체의 생활환경과 생업 구조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적 신앙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수부는 국가 제례와는 무관하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규범을 유지하는 상징 자본으로서의 공통된 의미를 지니며,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기억과 헌신을 제도화

한 신령이었다. 마을에서는 서낭을 보좌하거나 마을 운영에 헌신한 인물이 신격화되어 성황 옆에 협시되었으며, 해안에서는 수사자의 위무와 결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모셔진 신령들은 동일한 신격이라도 제의 공간과 환경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이 달리 재편되며, 각 신령 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구조 속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제의 체계가 단선적 위계가 아닌, 상호연동적·순환적 질서를 지닌 ‘의례 생태계(ritual ecology)’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영동지역의 신앙 체계는 천신(天神)·산신(山神)·성황(城隍)·토지신(土地神)·용왕(龍王)·해서낭·짐대·수부 등 다양한 신령이 각 층위별 제의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생존과 질서를 유지하는 통합적 신앙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층위별로 모셔진 주요 신령의 분포와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정리하면, 영동지역의 신령 체계는 공통적으로 ‘경계(境界)·생산(生産)·방역(防疫)·상위 통합(上位統合)’의 기능적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생업 구조,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각 신령의 위상과 역할이 변주되었다. 성황(城隍)과 토지신(土地神)은 내륙과 마을의 안전 및 생산을 관장하였고, 용왕(龍王)과 해서낭(海城)은 해안 지역의 항해 안전과 풍어(豐漁)를 주재하였으며, 산신(山神)은 산간 지역과 광역 교역로의 수호신으로 기능하였다. 한편 천신(天神)과 천왕(天王)은 상위 제천(祭天)의 주체이자 공동체적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다층적 분업과 협력의 구조는 영동지역 민속신앙이 특정 신격의 단일 지배체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맥락화된 ‘의례 생태계(ritual ecology)’로서 작동해 왔음을 보여준다. 즉, 신령 간의 위계는 고정된 서열이 아니라 지역 환경과 공동체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관계적 질서이며, 이는 영동지

〈표〉영동지역에서 모셔진 신령

구분	관행제 (官行祭 고을신앙)	마을 제당	해안마을
천신 (天神)	국가·고을 차원의 제천, 강우·충재 해소	상위 신령, 마을 단위 총괄·비상 제의 담당	상당신, 항해·풍어 총괄(실무는 용왕· 해서낭)
산신 (山神)	읍치 배후 주산에서 제한적 제의	주산의 자원·안전 관리, 성황신과 합사 사례	포구 배후 구릉 산신당, 항로 안전 포괄
천왕	일부 기록에 등장, 시조적·교화적 위상	여산신 또는 여성황으로 인식	여성황으로 인식
성황(城隍)	읍치 성황사에서 고을 수호, 행정적 정당성 보증	마을 주신, 경계·역질 방어, 거리제 결합	포구 입구·해서낭과 결합, 항해·풍어 기원
토지신, 社稷神	사직단·이사에서 국가 농정과 풍년 보장	터주신, 풍농·정주 기반 안정	보조적 성격, 마을 터주·항만 배후 안정
여역신 (厲疫神)	여단에서 전염병 차단·원혼 위무	성황·토지와 협시, 거리제 통해 방역	수사 원혼 위무, 별신굿의 용왕거리 결합
용왕	직접적 비중 적음, 기우제·해신제 일부	일부 마을 제당에서 보조적으로 봉안	해신·용왕 중심, 항해 안전·풍어· 수사 위무
해서낭 [海神]· 짐대(서낭)	없음	일부 지역	항해 안전·풍어· 수사 위무, 마을 안녕
수부	없음 (국가 제의와 무관)	마을 공덕자· 개창자 숭배	수사자(水死者) 추모 성격 강화

역 신앙 체계의 유연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문헌 기록과 현지 조사를 종합하여, 역사적으로 고을 단위에서 모셔온 신령들과 오늘날 내륙과 해안지역 마을에서 각각 모셔지는 신령들의 위상을 검토하였다.

정리하면, 조선시대 관행제(官行祭) 및 고을 신앙에서 중심으로 모셔진 신령은 토지신(土地神)·성황신(城隍神)·여역신(厲疫神)·독신(蠶神)이었으며, 근대 이후 제도적 기반이 소멸한 뒤에도 마을 제당으로 전이·재편되어

여전히 지역 신앙의 핵심을 이루었다.

오늘날 마을 제당에서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천신(天神)·산신(山神)·토지신(土地神)·성황신(城隍神)·여역신(厲疫神)·용왕(龍王) 등을 모시고 있으며, 더불어 마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수부로 기리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해안지역에서는 천신·산신·성황·해신(海神)·용왕·짐대[짐대서낭]가 지역 상황을 배경으로 모셔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에 따라 세부 양상은 다르지만, 대체로 성황을 중심 신령으로, 천신이나 산신을 상당신(上堂神)으로, 여역신·해서낭·용왕·짐대 등을 하위 신령으로, 토지신을 터주로 모시는 위계적 구조가 나타났다. 제의에서는 중심 신령을 중심으로 상당신(上堂神)과 하당신(下堂神)이 협시(挾侍)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공동체 신앙의 논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령의 신체(神體)는 위패·당신도·위목 등이 사용되었으며, 봉헌물로 쇠말[鐵馬]·길지(吉紙)·남근(男根) 등이 바쳐진 사실도 확인된다. 이는 유교적 제의 문법과 민속적 감응 논리가 중첩·융합된 신앙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리고, 천신·산신·성황·토지신·용왕 등은 내륙·해안·산간이라는 지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발휘하였다. 내륙에서는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해안에서는 풍어(豐漁)와 해상 수호를, 산간에서는 산림 자원과 수원(水源)의 안정 및 교역로의 안전을 관장하였다.

이처럼 신령의 배열과 위계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생업 구조를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민속신앙이 지역 사회의 경제·생태·문화적 맥락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 지역의 공동체 신앙은 단일 신격의 절대적 권위에 기초하기보다, 기능·장소·공동체 규모에 따른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을 통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한국 민속종교가 단절이 아니라 ‘재맥

락화(remapping of context)'를 통해 성장하고 변모해왔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신령의 기능과 위상 변동, 상·하당 네트워크의 계절적·재난적 주기와의 상관성, 천왕(天王)·단군(檀君) 담론의 지역별 층위 비교, 그리고 신체(神體) 물질문화의 현대적 변용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 실천의 측면에서는 제의 장소의 경계 관리와 공동체 주체성의 회복을 병행하는 '의례 생태계(ritual ecology)' 기반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강원도의 내륙지역 마을, 해안지역 마을이 직조해 온 신앙의 장(場)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조율하는 공공적 자산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그 학술적·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심층적 재평가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東明王篇 / 帝王韻紀 / 三國遺事 / 新增東國輿地勝覽 / 北交兩雨諸海神祭文 / 海行摠載 / 祭海神文 南玉撰 / 耽羅船栗時祭南海神文 / 成俔, 虛白堂集 / 許穆, 陟州誌 / 李麟祥, 遊太白山記 / 심의승, 『삼척군지』, 1916.

2. 단행본 및 논문

-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 강원도편』, 1999.
- 김덕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神祠와 天祭壇」, 『역사학연구』 49, 호남사학회, 2013.
- 김도현, 「강원도지역 邑治城隍祠考察」, 『朝鮮史研究』 14, 조선사연구회, 2005.
- , 「삼척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과 성」, 『강원민속학』 19, 강원민속학회, 2005.
- ,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 『역사민속학』 2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 「태백시 咸白山 절골 天祭壇 운영 양상과 그 성격」, 『강원문화연구』 30, 강원대강원문화연구소, 2009.
- , 「울진 12령 셋재[鳥嶺] 城隍祠와 褙負商團」, 『실천민속학』 16, 실천민속학회, 2010.
- , 「삼척지역 큰서낭당 小考」, 『민속학연구』 23, 안동대민속학연구소, 2011.
- , 「태백지역 고갯마루 산령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 『박물관지』 18,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
- ,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23, 한국성곽학회, 2013.
- ,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32,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 , 「동해안지역의 민간신앙 전통과 이사부」, 『이사부와 동해』 11, 한국이사부학회, 2015.
- , 「강원도 고성 문암리 서낭제」, 『강원도 민간신앙 기초조사 자료집』, 국립무형유산원, 2016.
- , 「동해안지역 용왕제 연구」, 『한국민속학회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민속학회, 2016.
- , 「강원도 지역 山神祭 전승 양상」, 『남도민속학회 제231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남도민속학회·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8.
- , 「강원도의 마을신앙」, 『강원도사(민속편)』,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8.
- , 「환웅신화에 보이는 천왕의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 최광식 교수 정년기념논총』, 세창출판사, 2018.
- , 「동해안지역 마을신앙의 구조와 성격」, 『해신과 바다의례』, 도서문화연구원, 2019.
- ,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山神의 성격」, 『종교학연구』 37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9.
- , 「동해신묘제(東海神廟祭)의 역사와 전승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72, 동아시아고대학회, 2023.
- , 「울릉도 수도 기록을 통해 본 東海에서의 祭儀 연구」, 『울진, 수도와 월송포진 성』, 울진문화원·한국이사부학회, 2023.
- , 「동해안지역에서 모시는 신령 연구: 삼척과 울릉도를 중심으로」, 『동해지역 해방(海防)과 삼척포진』, 한국이사부학회, 2024.
- , 「원주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神靈) 연구」, 『운곡논총』 18, 운곡학회, 2025.
- 김도현·장동호, 『3대강 발원지와 태백』, 강원도민일보·태백시, 2010.
- 김영수, 「智異山聖母祠에就하야」, 『진단학보』 11, 진단학회, 1939.
- 나경수,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 조사 연구」, 『민속학연구』 10, 국립민속

박물관, 2002.

_____, 「지남리 지북마을의 민속」, 『전남민속연구(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보고)』 창간호, 1991.

박내경, 「無等山天祭壇開天祭信仰考」, 『남도민속연구』 11, 남도민속학회, 2005.

박흥주, 「천제(天祭)로서의 호계마을 별신제 연구」, 『비교민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서영대, 「한국의 제천의례」,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 경인문화사, 2009.

신종원, 「고대사 자료로서의 『제왕운기』」, 『한국사학사학보』 34, 한국사학사학회, 2016.

신종원·노남호, 「태백산 사길영 산령각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양양문화원(편), 『各司騰錄을 통해 본 襄陽』, 양양문화원, 2003.

유병하, 「부안 죽막동유적의 海神과 제사」,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이채원, 「조상신앙의 지역적 양상과 성격에 대한 시험적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12(2), 역사문화학회, 2009.

최종성, 「천제와 산천제: 진천 금한동의 천제를 중심으로」, 『상산문화』 20, 진천향토사연구회, 2014.

Abstract

The Structure and Meanings of the Deities Venerated in the Villages of the Yeongdong Region, Gangwon-do

Kim, Do-Hyeon |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Gangwon-do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ities venerated in the Yeongdong region of Gangwon-do, focusing on the differentiated ritual strata: official rites (gwanhaengje), village shrines, and coastal village rites. We examine a diverse pantheon, including Seonghwang, Tojisin, Yeoyeoksin, Cheonsin, Sansin, Yongwang, Haeseonang, Jimdae, Subu, and Cheonwang, each performing vital community functions.

Seonghwang and Tojisin protect boundaries and support settlement stability, while Yongwang and Haeseonang ensure maritime safety and abundant catches. Sansin governs forests and water, and Yeoyeoksin controls epidemics. Cheonsin and Cheonwang act as superior integrative deities, and Subu mediates communal memory by institutionalizing local merit.

A deity's function and status are not fixed but are reorganized based on the ritual setting (official, inland, or coastal) and the prevailing economic environment (agriculture, fishing, or forestry). This dynamic results in mutually complementary networks among central, upper, and lower deiti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Yeongdong ritual system operates as a "ritual ecology," not a linear hierarchy, flexibly adjusting to local environments and communal needs. This structure illustrates that Korean folk religion evolves through the continuous redistribution of roles and the recontextualization of ritual practices shaped by function, place, and community scale, rather than through the absolute dominance of a single deity.

Keywords Gangwon Province, Yeongdong Region, Official Rites, Village Rituals, Seonghwang (Guardian Deity), Tojisin, Yeoyeoksin, Cheonsin, Sansin, Yongwang, Haeseonang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